

주제와 관련된 토의자의 의견

장 남 수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오늘 대한영양사회가 추계학술대회의 심포지움 제목을 “통일한국을 대비한 영계 개발”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통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식량수급과 영양실태 문제를 파악하는 일, 주민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은 남한의 식품영양학자들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하는 본인은 하루 빨리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주민들,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영양과 건강상태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토론에 임한다.

꼭 2년 전 1998년 11월 18일에 이화여대 가정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변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영양상태”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오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시는 인요한 선생님 이외에 여러 분을 모시고 강연과 토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1년 전 1999년 7월에는 저희 학교 연변센터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문제 : 실태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영양학, 식품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문학, 농학, 인류학 등 범학제적인 측면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했던 모임이었다.

적절한 영양은 우리 삶의 근본이며, 개인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량난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성장률이 높고 따라서 에너지와 영양소 요구량이 높은 아동에게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내 영양불량은 그 파급효과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수년간 겪었던 규모의 극심한 식량난의 폐해를 극복하려

면 적어도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남북한 경협을 유도하고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다. 원활한 경협 활동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영양과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영양불량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에너지 섭취량이 이미 한계결핍상태에 있는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인은 KDI 북한경제연구팀장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바 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은 적어도 20% 이상 감소되었으며, 북한의 노동 생산성과 생산량을 13% 저하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 30%가 에너지 섭취량 감소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협을 통해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양부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영양개선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영양감시체계를 개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 남한에서는 여기 계신 영양학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영양감시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지난 98년에는 임상영양상태조사를 포함한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포함한 영양상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일, 모니터링해야 할 건강 영양문제의 선별, 감시체계의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일, 지속적인 영양감시체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김초일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의를 마친다.